

풍년기원 경북 대표 통수식...농어촌공사 성주지사 개최

석현철 | 입력 2024-04-23 발행일 2024-04-23 제20면 수정 2024-04-23 08:06



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지난 18일 성주호에서 '2024 경북 대표 통수 행사'를 개최했다.

이날 행사에는 이병환 성주군수, 김성우 성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한국농어촌공사 송성일 계획이사, 방덕우 비상임이사, 김우상 경북지역본부장, 이돈문 성주지사장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. 참가자들은 한 해 농사 시작 전 농업용수를 처음으로 흘려보내며 풍년을 기원했다.

송성일 한국농어촌공사 계획이사는 "깨끗한 농업용수 공급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라는 공사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한편 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지역 내 3천217ha의 농경지에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철저한 시설물 관리와 수질관리 등을 통해 양질의 농업용수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.

석현철기자 shc@yeongnam.com

프린트

취소